東亞日報

定價 一個月 六拾錢 ...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
發行兼編輯人 ... 印刷人 ...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 振替口座 京城 ...

政治的集會를 許하라 —民衆에 對한 侮辱

寺內總督政治의 暴虐이 하나 둘이 아니라 數之하면 許多하나 就中에도 最甚한 者를 求하면 그는 곳 政治的 集會를 禁止함이니 寺內氏는 「東洋平和와 朝鮮人의 幸福」을 爲하야 日韓倂合을 斷行한 後 直時 令을 下하되 朝鮮人에게 政治的 集會를 當分間 禁한다 하얏스며 甚至於 學生의 運動會까지라도 一一히 當局의 許可를 要하게 하얏도다(明治四十三年八月發布) 그 當分間은 幾何時間을 意味하얏스며 幾何年間을 意味하얏는고 十年이 經한 今日에 至하야도 依然히 그 當分間은 意味하는 바가 杳然하도다 朝鮮人의 幸福을 爲하야 日韓兩國을 倂合하고 朝鮮人에게는 政治的 集會를 禁止한다는 令을 發한 其旨는 大槪 如何한가 此를 一言以蔽之하면 兩國이 倂合된 大日本의 政治는 全部 日本人이 專斷할 것이오 朝鮮人은 關與하지 못할 것이니 朝鮮人은 맛당히 田이나 耕하고 井이나 穿하야 먹고 마시고 「幸福」을 享하되 맛치 牧場에 在한 牛羊과 갓치 하라는 것이로다 梃을 擧하야 人을 打殺함이 勿論 暴虐이며 劍을 拔하야 人을 斬殺함이 勿論 暴虐이라 그러나 그 梃으로 하나 劍으로 하나를 勿論하고 그 殺傷함은 오즉 一人에 不過하거니와 天下民衆의 財産과 生命에 關한 政治를 擧하야 或者의 手中에 專委하고 그 被治者에게 對하야는 一言을 發할 機會를 與치 아니하며 半句를 吐할 權利를 許치 아니하고 그 打할지라도 服從하며 그 蹴할지라도 服從하며 비록 그 毆하고 殺할지라도 服從하라고 服從을 强要함은 嗚呼라 天下民衆의 生命을 蔑하는 者며 天下民衆의 人格을 無視하는 者라 此以上의 暴虐이 엇지 人類史에 存在할바ㅣ리오 吾人이 木石이 아니오 糞土가 아니라 吾人이 엇지 政治的 是非에 對하야 感發이 無하며 苦痛에 對하야 感念이 無하며 革新에 對하야 意見을 抱持함이 無하리오 飢者에게 食을 與치 아니하고 渴者에게 水를 許치 아니함이 勿論 慘酷한 心情이어니와 言者에게 言을 禁하야 啞를 作하며 見者에게 見을 奪하야 盲을 成함은 곳 天을 逆하고 人을 蔑하는 大殘虐이라 엇지 苟々한 飢渴에 對한 慘酷과 同日히 論할바ㅣ리오 問하노라 是非의 判斷이 有하고 苦痛의 感念이 有하고 相當한 革新의 意見이 有한 人民에게 一言半句를 吐露할 權利와 自由를 許치 아니하고 無言과 絶對의 服從을 强要함이 此大殘虐이 何인가 嗚呼라 一人에 對한 暴虐에 對하야는 痛憤의 同情을 表하되 天下에 對한 暴虐에 對하야는 茫々然한 것이 今日의 通弊로다 問하노라 此 東洋의 平和를 確立하고 朝鮮人의 「幸福」을 促進하는 所以인가 朝鮮人이 牛羊이 되거나 或은 木石의 無感覺이 될 수 잇스면 此亦 그 道理라 하겟도다 그러나 朝鮮人이 亦是 人間임을 奈何오 吾人은 齋藤總督의 文化政治에 對하야 吾人이 不滿을 抱하는 所以는 大槪 如此한 點에 在하나니 氏가 文化政治를 標榜하고 寺內氏의 作罪한 集會를 禁止한 그 無理에 對하야 果然 如何한 善後方策을 取하얏스며 果然 如何한 巨腕의 刷新을 加하얏는가 同法令은 依然히 机上에 橫在하야 偉大한 勢力을 發하며 依然히 官憲의 手中에 在하야 民衆의 自由를 壓迫하는도다 吾人은 此를 朝鮮民衆에 對한 一大侮辱이라 斷言하노니 何故오 吾人은 「人民」인 故로 政治에 干涉할 當然한 權利를 有하며 吾人은 「人民」인 故로 政治에 對하야 意思를 發表할 當然한 權利를 有하는도다 朝鮮政治가 엇지 「總督府」의 政治이며 朝鮮民衆이 엇지 「總督府」를 爲하야 存在하리오 朝鮮人民은 稅金을 納하되 그는 朝鮮民衆의 共同生活을 爲하는 政治를 爲하야 負擔함이오 總督府 그 自體를 爲함은 아니며 朝鮮人民은 總督府에 對하야 各樣義務를 施行하되 그는 朝鮮民衆의 共同生活을 爲하는 團體의 性質을 有하는 까닭이오 總督府 그 自體를 爲함이 아니로다 然則 政治의 目標가 되고 朝鮮政治의 主體가 되는 者는 朝鮮民衆이며 그 共同生活이니 그 主體되는 바 人民이 換言하면 主要分子가 그 共同團體를 擁護하고 그 共同團體의 行動 即 政治를 爲하야 意思를 發表하고 干涉을 行할 權利를 有하는 것은 當然하지 아니한가 그 當然한 權利와 自由를 剝奪하고 그 壓迫을 加함은 곳 民衆을 侮辱함이오 그 人格을 無視함이로다 然則 奈何오 吾人은 多言을 欲치 아니하노라 總督府當局者가 勇을 鼓하며 膽을 大히 하야 그 當然한 權利를 認定하고 政治的 集會의 自由를 許하라 하노라

現代政治의 要義 (七)

三、三權의 分立과 民權의 伸張

專制政治가 沒落하고 立憲政治가 確立함에 國家의 組織이 그 根本으로부터 改革이 되얏나니 이제 從來의 國家組織을 擬하면 帝王의 藩屛으로써 組織이 된 行政機關이 國家政務의 全部를 總轄하야 他機關의 存在를 認치 아니하는 故로 政治는 獨裁的 濫權에 流하야 大衆의 生殺與奪을 行政部의 任意로 行하얏스나 그러나 立憲政治가 確立이 됨을 따라 國家의 組織이 行政部, 立法部, 司法部의 三機關으로 分하야 各히 獨立한 權限을 有하고 各 事務를 處理하게 되얏나니 이에 行政部에서는 從來의 獨裁的 政治를 行치 못하고 반다시 立法部의 嚴重한 監督을 受하며 且 行政處分에 不法行爲가 有할 時는 司法部의 裁判을 受하야 그 責任에 任케 되얏도다 此로 因하야 人民은 行政部의 濫權에서 救濟되얏스며 따라 그 權利는 伸張이 되얏나니 이럼으로 從來 存在가 有치 못하던 大衆은 政治上으로 存在를 保持하며 社會上으로 自由發達을 圖하게 되얏도다 그런데 立憲政治의 三權이 分立된 形式으로 論하면 統一한 一國에 在하야 三分한 國家의 權限이 各히 分裂하얏스나 그 實質에 在하야는 統治權을 總攬하는 機關이 有하야 此를 統一하나니 君主國에 在하야는 君主가 分立된 三權을 統一하고 共和國에 在하야는 大統領이 君主와 如히 國家의 事務를 統一하야 總攬함으로 國家의 事務가 비록 三權으로 分立이 되얏다 할지라도 그 根本에 在하야는 國家의 政務가 三個에 分裂이 되는 것이 아니오 結局 國家의 最高機關에 統一이 되야 一個 統一된 國家로 存立하는 것이라 그럼으로 三權의 分立은 政治가 一機關의 專橫에 陷하는 것을 豫防하기 爲하야 出來한 것이니 國家를 三分한 것은 아니로다 그리하고 此 三權의 分立을 最初에 說한 者는 英國의 「록크」이오 大成한 者는 佛蘭西의 「몬테쓰큐」이라 「몬테쓰큐」는 「萬法精理」라는 名著를 出하야 人間의 天性에는 濫權을 好하는 本性이 有함으로 政治를 一機關에 任한다 하면 自然히 濫權에 流하고 專制政治를 行케 될지니 故로 國家의 主務를 三權에 分立함이 可하다고 力說하얏는바 此學說이 當時 政治社會에 莫大한 刺戟을 與하야 佛蘭西革命이 起하며 따라 그 學說의 大部分을 採用하야 國家의 組織을 三權分立制로 變更케 되얏스며 世界各國은 君主와 共和의 區別이 업시 總히 此制度를 採用케 되얏도다 그러하나 朝鮮에 在하야는 아즉 如斯한 制度가 實施되지 아니하얏나니 國家의 事務가 三機關에 分擧이 되야 實行함은 如何한 것인지 又는 三機關에 分擧이 되야 行하게 되면 人民의 權利에 對하야 如何한 保障이 有하는지 一般民衆은 知치 못할지라 事物의 理를 闡明하라면 먼저 自身으로써 體驗함을 要하나니 政治의 要道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런데 多年 專制政治의 魔手에 奴隸하고 且 現今에 在하야 또한 現代政治의 施設이 無한 朝鮮人民으로 더구나 世界智識이 淺薄하니 人權을 保障하는 三權分立의 政治組織에 對하야 엇지 充分한 理解가 有하리오 그리하나 政治가 一機關에 獨占이 되야 스스로 法律을 制定하고 스스로 政治를 行使하며 스스로 法律을 適用하면 그 政治를 行하는 者가 비록 聖人이며 神人이라 할지라도 過失과 錯誤가 업지 못할지며 따라 此 過失과 錯誤가 有하면 此를 公揭하야 그 過失에 對하야 責任을 負케 하지 아니하나니 故로 그 政治는 常道를 踐하기 不能하며 政治를 行하는 者도 凡人이라 聖人도 아니오 神人도 아니니 政治를 行하는 者가 스스로 法律을 制定하면 自己의 便宜를 爲하야 制定할 것이오 또한 自己의 便宜를 爲하야 適用할지며 政治를 行함에 在하야 아무 拘束과 制限이 無하면 自己의 利益을 爲하야 行할 것은 勿論이라 이럼으로 스스로 行하는 政治가 私曲과 非理가 有할지라도 能히 스스로 掩覆할 수 잇스며 不法과 暴行이 有할지라도 人民은 伸怨할 곳이 有치 못하나니 故로 爲政者는 暴行을 行할 수 잇스며 人民은 呼訴할 곳이 無하야 그 暴政에 皆 ...

「小」의 暗影 (壹)

瞬星生

이에 한다리를 세우고 담배를 푸이고 잇던 鳳子夫人이 빈정거리는 듯한 一種 말할 수 업는 不愉快한 우슴을 씽긋 웃고,

「설마 英子가 말하는 것과 갓흘 수도 업겟지요. 哲秀氏도 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깁흔 생각이 잇서서, 그리서 아즉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아니한 것이겟지요만은......」

「아니야요, 내 말이 꼭 마저요」 하고 英子는 역시 慶男이를 對手로 「이번이 귀음이라고요? 늘 그런걸 음이 소군々々 귀속을 해서 다 作定을 해 놋코야 비로소 우리들에게 알니지요. 그드 알닐녀도 잇고 아니 알닐녀도 잇지요. 역시 韓主事와 가치 秘密이 만흔 사람들이 낫가요.」

「어이구 가마니 겝시요!」 하고 慶男이는 두 손을 내밀어 自己에게로 불똥이 건너오는 것을 막으면서, 「韓主事갓다는 그 말음은 엔실 말슴이올시다 마는 남드를 상사납게. 모르는 사람은 고지 듯습니다.」

「해, 해,」 하고 가뷔엽게 우스면서, 「그러치만 그런 말슴을 하시지만 韓主事에서도 아조 조터 秘密이 업스신 어른이라고는 할 수 업슬걸이요?」 하고 이상스러히 말끗을 올니며 말한다.

「어이구 천만에 말슴이지, 내야 公明正大하지요. 그런 外에 自然히 內外情理도 좃치요. 늘 日曜日이면 둘이 손목을 맛붓잡고 漢江이나 淸凉里로 散步만 다닌답니다.」

「암만, 그러시다 뿐이겟습닛가 그러서 커 언제도 다방골......」 하고 눈으로 우스면서 「一件이 發覺되는 날에는 夫人의 코가 뼈에 닷토록 謝罪를 하고, 그나 그 뿐인가 옷감을 떠온다, 活動寫眞 求景을 뫼시고 간다......」

「어이구 그만 둡시요...」 하고 좀 작업는 큰 소리를 질르면서 머리를 짜고 조ㅣ매커서, 「가마니 그 一件을 말슴하면 다시 두 마듸 할 말이 업습니다.」

「허, 허, 허!」 하고 鳳子夫人은 사나희 우슴을 우스면서 「行實이 끄약한 사람이란 어듸를 가던지 고개를 못 드는 법이지요.」

「어이구, 아즈머님께서 꼬지......」 하고 눈이 둥그러서, 「이러케 절므니와 老人이 두 분이 드러서 攻擊을 해 대시는 데는 當할 수가 업습니다 그려.」 하고 고개를 살레々々 내두른다.

또 큰 우슴소리가 낫다가 그 이웃 차자 鳳子夫人은,

「어이구, 내가 이러고 안졋슬 수가 업서요.」 하고 우어차 하고 이러난다.

「웨 이러케 벌서 이러나서요」 하고 慶男이가 自己 압헤 노혓던 술을 한 자, 「한盞만 더 잡숫시요」 하고 목음에 쭉 마시고 얼굴을 찡그려 가면서 盞을 내밀 때 老人은 손을 흔들며

「인제 나는 더 할 수 업서. 그것은 내 代身으로 韓主事가 잡수시요.」

이에 英子는 酒도 업시 酒盞 한盞을 가득 하부어 드리며

「어이구!」 하고 慶男이는 눈이 둥그래서, 盞과 英子의 얼굴과를 번갈라 쳐다보면서 「이건 사람을 골날라고 그리십니다 그려.」

「웨요?」 英子는 우서 가면서, 「그러다가 醉해서 오줌이나 싸면 엇더케 한낫가.」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허, 허, 허, 해, 해, 해」 하고 우슴소리를 合하야 두 사람은 滋味가 잇는 模樣이나, 哲秀는 조금도 사마가 업섯다. 哲秀는 實로 滋味 업섯다. 자리에 안즐 때에 慶男이가 한盞 부어 주엇슬 뿐 그 後에는 돌려보는 사람도 업스니 그것은 오히려 關係 업다 할지라도, 둘이 서로 안커서 씩에 當치 아니한 이야기를 滋味 잇게 씨속거리면서 靜子의 일은 아즌 듯이 아모 소리도 아니하니 그것이 不愉快해 견딀 수가 업다. ... 哲秀는 ... 自己妻를 노려보다가 별안간,

「그러서 靜子의 일은 엇더케 되엿단 말이요?」

이 말에 두 사람은 破興이 되야 英子는 무엇이나 이러버린 듯한 얼굴로 멀거니 이편을 向하야

「靜子의 일이요? 커쪽에서 썩 재촉을 하신단 外에 來月 안으로 韓主事夫人께서 테려다 주시기로, 韓主事가 宅으로 가면 靜子가,」

「그것이 오히려 便할 듯해서」 하고 慶男이도 말참례를 하야 「黃氏네 집에서는 이제 잇던 사람이 간 후로 더 업시 재촉을 한다네.」

「누가 보낸다고 作定을 햇서요」 하고 哲秀가 慶男이는 두어 두고 妻를 向하야 눈을 부름뜬다. 英子는 거짓말도 아닌 것처럼 암쪽 놀러가면서

「에그머니, 웨 이편하고 靜子하고 두 분이 作定하시지 아니햇소」 하는 말에 哲秀는 이상한 듯이 고개를 기우리며 妻의 말을 되집허,

「나고 靜子하고 둘이서......」

「이거 웨 이러케 시침이 쎄이는 수작을 하서요! 이편에서 매인 커음에 擔保를 하시지 아니햇슴닛가? 그리고 어커 밤에...... 내게는 아모 말슴도 업섯스나, 靜子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셧々나, 그레 다가기로 作定된 일이 아니지요? 그러서 악가 靜子를 불러다 무러 보닛가 「아재께서만 가라시면」 하고 冷笑를 하면서 「가겟서요」 하두군이요 나는 오늘 커음 듯는 이야기닛가 무어가 무엇인지 사연을 알 수가 업스나 대강 짐작컨데 그런 것이거니 햇습니다만은, 그런도 或 내 짐작이 틀녓나요」

「그러면 靜子가 가겟다고 햇구려?」

「네, 내게는 그러드구면이요 웨 이편에는 그러케 말하지 아니해요?」

借力興陽 專門劑 ... 振替 ...

勇力丸 服用時로부터 ... 定價 ... 四象醫院 京城府 ... 番地

讓渡廣告 小資本으로 ... 製造機械 一式 ... 製造材料 及 權利共 讓渡함 京城 ... 佃文함

滋陽興奮 專門劑 佛國醫學博士 ... 氏發明

春藥 老少勿論하고 諸原因으로 腎氣不足하야 房事不能하온 대 服用하오 ... 七十老人이라도 不可形言의 大快樂을 得할 ... 定價 一劑 參拾圓 特製 五拾圓 濟世藥房本舖 京城府竹添町一丁目 振替京城 六三四番

好職業 專賣特許 各國輸出品 ... 男女 ... 一日三圓 ... 京城二葉會 ... 東京 ... 番

拜啓 ... 永盛運送部 ... 國內通運社 ... 平壤驛前 國內通運社 長途電話 三二三番 主任 宋仁浩 李光堯

根治丸 ... 本劑의 特長 ... 定價 十日分 一金 壹圓 ... 化學的 新藥 治淋球 定價 一週分 金壹圓 二週分 金壹圓八十錢 男女淋疾의 靈藥 斯界에 盛行하는 但只利尿劑的 의 淋病藥으로 同視치마시옵 ... 救世藥館 京城南大門內 電話 三〇一番 振替京城 一二六九番

舊歲暮廉價大賣出 ... 新興帽子店 京城府鍾路通三丁目

辯護士 許憲 京城府貫鐵洞一一九番地

今日神戶出帆 日本郵船 吉野丸으로 留學次 渡獨하옵기 臨하야 紙上으로써 辱知僉彥의게 仰告하나이다 一月八日 朴勝喆

開闢 新年臨時特大號 本號에 限하야 特價 七拾錢 · 郵稅 貳錢 發行所 京城 慶雲洞 八八 振替京城 八一〇六 開闢社

新年劈頭에 볼 으지즌 큰소리
여러분, 여러분이여 ...
歲在壬戌에 萬事亨通 ... 李敦化
거듭나자 ... 玄相允
새時代의 새사람 ... 張德秀
余의 回顧와 展望 ... 李鍾麟
오직 『참』이 잇스소서 ... 朴達成
中國女子界를 보고 우리 女子界를 봄 ... 東昨
彼의 『恭賀新年』 ... 金起瀍
님 생각 (新詩) ... 金億
小說 闇夜 ... 廉想涉
少年에게 ... 一記者
汎辛酉의 回顧 ... 李敦化
天地玄黃 ... 同人
우리 農家에 必要한 副業을 倫함 ... 李晟煥
特別附錄으로 大長幅의 人家名의 書講가 잇습니다
近代文藝 ... 白華
金잔듸 ... 素月
프로메르 ...
查 ... 一記者
小說 七面鳥 ... 金明淳
小說 墮落者 ... 憑虛生
脚本 犬 ... 玄哲
脚本 하믈레트 ... 玄哲
海東의 后稷 文益漸先生
世界一周 山넘고 물건너 ... 盧正一
藝術과 人生 ... 京西學人
元旦 (新詩) ... 金石松
藝術協會 第一回 試演을 보고 ... 玄哲

新寫眞 全部交換 每週二回交換提供 自正月十五日 至正月十七日 三日間 米國 ... 黃金의 家 ... 十三의 秘密 ... 아一 青春 ... 誤解로써 誤解 ... 團成社 京城府授恩洞

婦人益母草엑기쓰 益母草의 靈妙한 效能을 徹底한 科學的으로 最高限度로 發揮케 한 ... 主治 ... 定價 ... 大盛堂藥房

ClibPDF - www.fastio.com

海軍條約議了

十二日의首席全權會議에서海軍條約의審議는全部此를了하얏스며十三日에更히一次點檢하기로決하얏는데砲壘規定에關한日本의回答이有함을待하야來週初總會議에附하리라더라 (華盛頓十二日發)

總會議開催遲延
太平洋諸要塞의協定未決定

五大國代表는海軍條約中에太平洋諸島의要塞에關하야日本政府로부터訓令의來着을待하야此最後에延期하고本日은但重要事項을審議하얏다하는대日本政府의決定할點은日本南方三百哩의海上에在한群島는其要塞의現狀을維持하는海軍條項規定에準據할가否할가함에在한대此를換言하면太平洋諸島와는地理上如何한範圍를包含할가하는問題이더라本問題의解決이遲延됨에因하야想必來週中에總會議의開催를得치못하리라더라 (華盛頓十二日發)

小笠原現狀維持是認

─日本代表는余는小笠原島及大島의諸島를海軍協定中防備上現狀維持의部類에包含됨에何等反對가無하다聲明하얏는데如斯히하야日本代表는此點에關한協定의成立이決코困難이안인것을暗示하얏더라 (華盛頓十二日發)

日全權批難激烈
小笠原防備問題로

海軍條約防備問題에就하야今에更히日本은小笠原防備問題로關하야英米와意見이阻隔하야日本全權의批難이紛々하더라 (華盛頓電)

山東交涉未解決
十三日繼續討議

十二日午後의山東交涉에는中國은膠州灣全部를開放하야外國人의居住商工業其他의事業에從事하는權利를認하는事를承認하고青島施政에就하야는日本은居留民의權利擁護를爲하야一般外國人의施政上의發言權을要求하나中國은完全한行政權을得할事를主張하야決定치못하고十三日午前에繼續審議할터이더라 (華盛頓十二日發)

米妥協私案提出

米國々務卿「휴스」氏는山東鐵道의妥協案을作成하야非公式으로提出하얏더라 (華府電)

九個協約과和蘭

華盛頓來電에依한즉責任이有한方面에서는和蘭이九個國協定으로부터脫退하나니할가하야憂慮하며又는和蘭은蘭領西印度帝國(?)에關하야和蘭의主權을尊重하는西印度諸島에限하야(帝文不明)을行함에止할事를求할듯하다는說이傳하더라 (倫敦十二日發)

各委員繼續歸程

陸軍少將田中氏以下多數日本委員一行은會議의進捗如何에不拘하고二十四日桑港을發하야歸途에就할터인대日本代表는日本은勿論「제노아」會議에參加할決心인바諸國이同會議에參加하는關係上日本도亦特히同會議에參加함을希望한다云々 (華盛頓十二日發)

歐洲經濟會議案

當地의確實한側으로부터聞한바에依한즉「카ー느」에서決定한一般會議의綱目은

第一、歐洲의經濟的狀態恢復에關하야「카ー느」會議의決議를行할事
第二、一般信用恢復緊要條件
第三、復興에關한公共財政及國費
第四、貨幣의改革
第五、爲替調節
第六、大陸諸銀行及發行銀行券
第七、商業關係關稅制限及輸出入規則
第八、運送設備
第九、信用制度
第十、通商恢復에對한保障
第十一、經濟的復興을爲한專門的援助

等인바右會議의目錄은一九二〇年「브라셀」會議의目錄에基한者인대右目的을遂行하기爲하야各參加國에서는補助機關을設置하며日本도此에參加하게되리라고報하는바日本의參加는露國其他復興을要하는國에材料供給의契約을結하게될으로因함이더라 (華盛頓十一日發)

獨逸代表「칸」會議向發

獨逸代表를「카ー느」最高會議에招致하는案은過般決定을見한바「에라나우」博士를首班으로한獨逸代表一行은十一日伯林發巴里에向하얏더라 (倫敦十二日發)

佛內閣辭職內容

「브리안」內閣도「카ー느」會議가防禦同盟及歐洲의經濟的復興에關하야露國과協議할事를否決함에因하야辭職하얏더라 (巴里十二日發)

華府會別無影響

─「브리안」氏의辭職은本會議에는影響이無하며「사로ー」氏가首席全權이되얏더라 (華盛頓十二日發)

英米協約破壞乎
佛內閣總辭職의結果

佛國內閣이總辭職한結果는意外의波에影響을及케하야「제노아」會議에서協定한英佛協約은破壞될터인故로更히兩國間에新히協約을設할必要가有하리라더라

英內閣分裂兆候

英國聯立內閣諸黨間에意見의一致를缺한故로分裂의兆候가漸次擴大하야來月總選擧를行할터이더라 (倫敦電)

國際聯盟理事會

國際聯盟理事會는招集되야開會準備를開始하야國際裁判所設置를提議할터인대今回의議長은「이민느」氏이라더라 (「제네바」電)

勞農國極東出兵
日本의白軍援助에對抗코자

武市共產黨側의某紙는曾히莫斯科의全露會議席上에서「트로키」氏가行한演說即『極東의白軍이日本軍의援助에依하야蹶起함에因하야極東共和國이危機에瀕한바今日吾人은極力此를援助하리라』述하고華府會議의四國協約으로力을得한日本은白衛軍을使嗾하야極東共和國의破壞를企圖한다云하야「트로키」氏의演說과如히遂히勞農軍의出動을見하게되얏도다

「日本은假令四國協約의力을得할지라도他五國의反對가有하고露國에는全世界無產階級의同情이有한故로沿海州의恢復은不遠에在하다」論하얏더라 (海蔘威電)

鐵道沿線에戒嚴令

極東共和國은國內及西伯利鐵道全沿線에戒嚴令을布告하얏더라 (海蔘威電)

南北統一議進捗
梁、陳間諒解成立乎

廣東政府의報道에依하면陳炯明氏는梁士詒氏와南北統一의議를進하는中인대唐紹儀는南方代表가되야會議에出席할터이라더라然이나開催되면唐紹儀氏도此에參與할은確實한바遂히統一會議가廣東政府는九處地를明白히하기爲하야汪兆銘氏의手로北方討伐令을起草中인대不遠發表할터이더라 (上海電)

諸督軍의反梁通電
徐總統에內閣更迭을要請

湖北督軍蕭耀南及同省長劉承恩兩氏는連名으로九日附通電을發하야吳佩孚氏의通電에應하야梁士詒內閣의山東問題에對한軟弱한態度를攻擊하야反對를聲明하고更히徐總統에對하야別히後任을擧하야內閣을組織케할事를要하얏더라 (上海十一日發)

廣西一帶風雲急
孫文氏討伐軍出動準備

孫文氏는廣西를中心으로하야獨立을宣言하고자準備中이라推測되는바又同氏는討伐軍으로하야魏邦平氏의第三師團을此際에出動케하고자하야今에風雲이漸急하더라 (廣東電)

張作霖對梁警電
誠意로國權을鞏固히하라

張作霖氏는梁士詒氏에게左의電報를發하얏더라 (上海電)

吳佩孚氏及貴下의通電은皆拜承한바刻下의危局에對하야余는各省長官은誠意로外國權을鞏固히할事를望하며徒히互相排斥함은他國으로하야금外交上漁夫의利를收케함이리云々

梁閣討伐動軍始

吳佩孚氏는梁士詒討伐을爲하야軍事行動을開始하얏더라 (北京電)

浙江督軍辭職

浙江督軍盧永祥氏는辭職할旨를政府에通電하얏더라 (上海十三日發)

藏省提案內容
神野大藏次官談

當議會에大藏省으로부터提出할稅法의改正案은部分的의것인대有는歲入豫算에는殆히影響이無하고其提出法律案은酒造稅及織物消費稅取引稅所得稅相續稅等인대當局部的改正이라前議會의建議案이던酒造稅는清酒의查定에關하야現行百分의五를增加한은政府當局에서十分調查를遂한結果當業者의主張을正當하다認하야此結果此希望에添코자此의改正을行할터이며又織物消費稅에對한組合의手數料로支拂일交付金은從來의取扱額을標準으로又木棉絹織物等과其鈞衡을失한患이有한故로改正하야取扱額과分量으로區別하기로改正할事를決하고其他는所得稅相續稅取引所稅法等의改正인대其提出案中酒造稅는還租撤增加의結果歲入은約百五十萬圓의減少를免치못할지나酒稅全體로부터堅實하다云々 (東京電)

砲兵工廠
大淘汰實行

東京砲兵工廠에서는今年度에限하야四五千名의職工을淘汰치아니치못할運命에在하야秘密히此의方法을講하는中인대此에關連하야三月頃에는官業勞働者의一大同盟罷業이勃發할虞가有하다더라 (東京電)

對中貿易累計
大藏省發表

去十二月中의對中貿易은輸出二千百七十六萬一千圓輸入一千四百八十二萬圓差引六百九十四萬一千圓의出超를生하얏고前年同期의輸出은一千九百六十二萬七千圓輸入은一千三百七十八萬六千圓差引五百八十四萬一千圓의出超이며又一月以降의累計는輸出二億七千四百五十萬圓輸入一億七千八百四萬一千圓差引九千六百四十八萬九千圓의出超이더라

東南亞細亞를科學的으로探檢
「구리코리」敎授

「우오ー라ー·구레코리」敎授는令息一人을同伴하야來三月中에英國을出發하야雲南及四川西方의山岳을踏破하야「히마라야」山脈과의關係及亞細亞東南部의山岳系統을調査할터인대同敎授는中國人의護衛에依賴하야自身은單히銃獵만携帶할터이라云하며同敎授는右探檢에依하야蒐集한地質學上의參考品은「구라스코ー」大學에動植物學上의參考品은倫敦博物館에又若干의標本은「칼굿타」博物館에寄贈할터이라더라 (倫敦三日發)

布木商陳情에就하야
長尾京城理事官談

京城布木商組合에서는朴承稷、俞鎭哲、金潤秀氏等代表의名으로營業稅에關한陳情書를京城府廳에提出하얏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此에對하야京城府長尾理事官은語하야曰『昨日布木商組合으로부터陳情書를接受하얏스나元來營業稅로論하면商品賣上高에對하야小賣商은萬分之七의規定으로徵收한다는것은附條例에有한즉此際에到底히變更키難한問題이며且營業稅는各商人의利益과損害에는何等의直接干涉이無하야商人의利益이多額에達하야도更히稅金을增收하거나又는損害가有하다하야도減稅를行하는規定이無한즉方今布木商處地가困難하다하야陳情이不當하다는條例를變更키前에는他道가無할지나昨日에如斯한意味를代表者에게說明한즉代表者側에서는條例가若是하면特히賣上高를調查할時에減額으로調查하야달나는希望이有하얏스나此亦當局者의處地로는斷言키難하노라云々

布木商側 金潤秀氏談

現在綿絲布賣捌의利益이無함은一般히共知하는바이나京城府에서는利害를不關하고營業稅를徵收하야그러치아니하야도損失을見하는綿絲布의賣上高로因하야他의附加稅外지總額이되야布木商等은非常한困境에陷한狀態인대局外者의觀測으로는損失을見하는物品을賣上할必要가何에在하며且損失을見치아니하는程度外지綿絲市의小賣價를引上치못할理由를疑問視할지나此는日本人側의都賣商이小賣外지兼行하야十五正부터都賣價로賣捌한즉此際에朝鮮人布木商이小賣價를引上한다하면顧客은皆日本人側에吸收될터이며且布木商의主要商品인綿絲布의賣買를中止키不能하다하노라云々

金融漸次緩和

金融界는歲末旬日間은相當히繁忙하얏스나越年後에는資金의回收가順調를示하야兌換券의發行高는漸次로縮少하야十二日現在日本銀行券은一億二千四百萬圓이오鮮銀券은一億二千六百萬圓인바鮮銀券은昨年末에比하야日銀券의激減을示하고鮮銀券은昨年同期에比하야又二千萬圓의減少를示하얏고普通銀行貸出도年末에比하야漸減하얏스나資金의需要는減少하야金融界는漸次緩和의傾向을示하얏는데新穀漫의販賣를加함에至하얏는대新穀資出은十二月上旬以來米價下落으로商人의資出이不振하얏스며此에比하야資金은昨年末에는貸出이不況인바一面으로는地方에는相當히資金이流入하야株界와如함은地方側의收入이漸次로增加한다더라

教育令審議內容
大勢旣히決定、修正要點은承認
柴田學務局長談

來十八日樞府本會議에上程될朝鮮臺灣敎育令改正案은本會議를二十五日로延期開會할事로變更하얏슴으로써水野政務總監의渡東도延期될터인대東電에依한즉四個의要求條件이否決될形勢가有하야此의支持에盡力키爲하야政務總監이渡東함과如히報道하얏스나

改正案의審議는旣히了하고大勢가亦決定하얏슴으로써尙一本會議에서質問이有할際에此에應키爲하야列席함에不過하며從하야本會議는一回로終了될줄로豫想하는바假令最後의審議가意外로遲延될지라도數回에亘하야本會議에附議함과如한事는無할지라信하며今回의改正案審議에對한樞府의態度는實로懇切熱心하야歲末歲初怱忙한際에前後數回에亘하야委員會를開催하야慎重周密히本案을審議함과如함은曾히

前例를見치못한바로서此點에關하야關係當局으로는滿腔의謝意를表하는터이라樞密院에在한原案修正의主要點인共學問題中普通學校부터差別을撤廢할件은其內容이아즉言明할時에達치못하얏스나此는總督府將來의理想하는바로서今回樞府에서審議決定한바에依하면現在의學校費令이던지學校組合令이던지皆存置할事即普通學校小學校存置를主義로하야

日鮮人共學의原則에依코자하는總督府提出의原案에特殊한事情을參酌한것으로서從來朝鮮人敎育은朝鮮敎育令에依하야支配되던것을朝鮮에在한敎育은總히朝鮮敎育令에依하야支配될事로規定하야日鮮人의差別을撤廢하고다만學校의種類等特殊事情이有한者에除外例를設함不過하도다共學問題에附隨하야生할問題는

普通學校及小學校現作을主義로하는以上日本人學童의小學校入學과朝鮮人學童의普通學校入學의境遇에對한組合費學校費를如何히負擔케할가함이問題인대此點에就하야는總督府令으로써適當히發令을하야學校費令及學校組合令의一部를改正하야支障이無케하기를期할지라云々

四高普校新設
鏡城、海州 光州、慶南

總督府學務當局者談

十一年度學務局關係의新施設은普通學校三面一校制完成及高等普通學校增設大學豫科準備等이며普通學校三面一校制는今十一年度로써殆히完成될지며

高等普通學校의增設은十一年度의豫算이四個高普設置의豫算外에無한바其設置豫定도는咸鏡北道에鏡城、黃海道에海州、全羅南道에光州、慶尙南道에一個校等으로써今年中에新設할터이라此外에도高等普通學校設置를願하는地方이多하야忠淸南道와如함은旣히設置費用을募集하야目下其位置에對하야各其猛烈한

運動을開始하는中이나그러나以上旣陳함과如히十一年度의高等普通學校設置豫算은四個校設置豫算外에無한즉或은今年中에其設置를見키難할지도未知이라云々

最近典舖狀況

由來十二月은受入共히盛況을呈하고特히下旬의受質이最히繁忙을極하야其回收金額은二三兩月은貸出이多함에先分하다稱하는대貧困한歲末의狀況을觀하면店에依하야事情이相異함은勿論이나受質이豫想以上의多數에達하얏는대一月은貸出이多함에比하야先分히다稱하는바이업스나一般店에는

商議聯會開催
京城側贊成

京城商業會議所에서는十三日午後二時부터役員會를開催하고全鮮商業會議所臨時總會開催의件을附議하얏는바此總會開催의目的은華盛頓會議로軍備制限의結果日本은二億圓의豫算剩餘를生하얏슴으로其一部分은朝鮮諸業開發費에充할事를全鮮商業會議所聯合會에서決議하야政府에要望함이라는데討議의結果贊成하기로決定하고仁川、平壤等各商議에서도贊成의通知를發하얏다한즉朝鮮에서는最히緊要事임으로本月末頃에는臨時總會를開催함에至하리라더라 (殖銀調查)

京城勞銀低落

土木協會調査에依한一月中의京城勞働賃金은結氷期에入하야諸建築工事의休止로因하야日本人側은一割一分七厘와朝鮮人側은二割三分四厘가低落하얏스며尙且種別로見하면日本人側은十九種中低落한者가十一種이오朝鮮人의十九種中低落한者는八種이라더라

府協議會開催

京城府에서는明十六日午後二時부터同府會議室에서協議會員이出席하야協議會를開하고水道移管에關한具體的內作을協議한다더라

社會事業連絡機關

社會事業關係有志가發起한社會事業關係者懇話會는豫定과가치十三日午後六時明月館에서開會하고京城에在한主要한社會事業關係者는殆히全部가出席하야意見을交換한結果朝鮮人의社會事業關係者를有目으로삼아懇話會를常設機關으로組織하고(一)社會事業經營者와慈善家의連絡(二)各種社會事業의研究調查(三)一般社會事業趣旨의宣傳等의實行事業의綱領을決定하얏다더라

咸南金融組合新設

咸鏡南道에今般下碣隅金融組合을新設할事를十五日附總督府告示로써發布하얏더라

消息

▲宋繼白氏 宿痾로因하야永柔自宅에서治療中이던바今月十二日午前十時逝去

▲齋藤咸北知事 는再昨十三日入京昨日午前總督府學務局長을訪問하고高等普通學校設置에對하야協議

橫說竪說

▲敎育令의修正은旣히完了되고來十八日에樞密院本會議에附議할터이라하는바原則으로는朝鮮과日本兩地의差別을設치아니하되實際問題로는差別을設치아니치못하얏다▲差別의無差別을무엇으로써標準하는지알지못하거니와實際問題의差別은共學制度를一般으로施行치못함이라한다▲그러하나事實가一般的으로施行이되기難함으로도差別이라하는標準何에두느냐이업는말이다▲그런대日語를解하는者는小學校로부터共學하고解치못하는者는依然舊敎育令에依한다하니그無條件無經綸이알으愚翁의金算에도不及하겟다▲小學校學生의年齡은멧살인데日語를解하나니하야못하나니하야無用의區別을設하면數個月의貴重한時間과만흔經費를消耗하는가아무리厚顏無恥한倭城君子이라할지라도帶石紅顏의良心이無치아니할것이다▲樞府의老翁들은朝鮮의形便을熟察치못함으로倭城派君子들의計劃이그대로通過될것은無疑한事實이지만은만일老翁들이多少라도理解가잇슬것갓흐면修正案의通過는姑舍하고誠意的不信任說이出來할는지未知이다▲그러하나倭城君子들은저들의心理와意見을充分諒悉함으로아무心慮도하지아니하고通過될것을樂觀하는貌樣이니그巧智妙計는如何間에樞府老翁들을爲하야一吊치아니치못하겟다▲一時沈靜하든比島獨立問題는更히花火를發하는貌樣이다▲米國延長의沿岸航行法은比島代表의反對로中止하고陸軍側에서外지贊同하얏스며比島에서는「우드」使節의復命이不適宜함을指摘하고更히上院議長「케손」君을獨立運動委員長으로하야二月初以內로渡米케되얏슴은卽愛國의自由를이된셈에또다시新戰線을發生할見을가한다▲古人이云하되人皆有兄弟어늘我獨無라하더니哀哉라지我獨을吊할者그누구인가

謹告

昨十四日附發行本紙第五百四號는記事中當局의忌諱에抵觸된處가有하야發賣禁止의處分을當하얏기로該記事를削除하고號外로發行하얏기茲에謹告

東亞日報社

商況

◎朝鮮銀行券 (一月十三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補助準備	[illegible]

◎日銀帳尻 (一月十二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發行餘力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以上千圓單位)

日本金利及市況 (一月十三日現在)(一錢單位)

	東京	大阪
普通割引步合	[illegible]	[illegible]
翌日物	[illegible]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六十日	[illegible]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十四日)

收數	二、九九九
金額	二、四〇七、五〇五

大阪三品 十四日前場

	寄付	大引
當月	二五八、二〇	二五八、九〇
二月	二四九、八〇	二四九、一〇
三月	二四七、八〇	二四八、〇〇
四月	二四五、〇〇	二四五、二〇
五月	二四四、六〇	二四四、六〇
六月	二四三、七〇	二四四、〇〇

大阪株式 十四日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上取	[illegible]	[illegible]

京株賣買高

十四日의京株市場의賣買成立高는如左하더라

甲部 二千七百三十枚
乙部 一千一百十五枚
短期 三千三百七十枚

株式市場
諸株一齊暴落

京取市場의人氣는諸株는何等材料업시硬軍側의買煽으로一般株客의買氣濃厚하야京取는百二十圓으로安取는一次五十圓을現하고四十七八圓臺에서上下하나買方側의固執으로或은七十圓臺를傳하며仁取、京信、大新도大勢의逆行하는時勢를演出하더니十日後場에京取는今週十一圓五十錢、來週十一圓六十錢短期十一圓에暴落하야止하고安取株는週間은四十四圓臺、短期四十三圓에止한바目前이益軟하더니昨日前場에는賣力이優勢로氣配弱하게立會하야京取株는前日보다僅七圓이나暴落한百八圓六十錢에付하야十一圓臺를一次現하고九圓二十錢에止하고來週는百十圓八十錢에付하야十一圓四十錢外지步하고十圓八十錢에止하얏스며短期는百八圓五十錢에付하야十一圓外지高하다가反落九圓臺로錢에止하얏스나賣買도多數하고目前은益軟하며安取株는軟弱한大暴落을演出하게되야短期는四十一圓十錢에付하야二圓과一圓八九十錢을截線으로能攻守防하더니買方의優勢로四十圓의大關門을破하고三十九圓九十錢外지下하다가止際에四十圓四十錢으로止하얏스며[illegible]

仁取增資株分配

仁川米豆取引所의增資新株의割當方法에就하야는重役會에서附議하얏스나大株主의意見을聽取하기爲하야十五日大株主會를開催하는대重役會에서는舊株一株에新株二株를割當코자決定하얏다더라

乙之部 十四日

		前場	後場
安取	今週	[illegible]	[illegible]
	來週	[illegible]	[illegible]
大新	今週	[illegible]	[illegible]
	來週	[illegible]	[illegible]
上取	今週	[illegible]	[illegible]
	來週	[illegible]	[illegible]
京信	今週	[illegible]	[illegible]
	來週	[illegible]	[illegible]

京株市場賣買價 (十四日)

株名	前場 今週	前場 來週	後場 今週	後場 來週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漢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韓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電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況

昨後場은大阪時勢軟保勢로近際報하얏슬뿐아니라正米亦軟弱할에는더욱軟弱하게報하얏스되當으로雖云冊中의氣勢로도幾分退地는其히堅强한態度로三十一圓[illegible]八圓九十錢이오先限은昨日以來諸軟材로下勢의氣味濃厚한中今朝大阪初付亦今月中新低價六圓限은大阪二節七十錢을傳하니硬軍의買氣盛하니二十一圓에始하야十錢으로止하다▲第三節當不成에中은八圓八十七錢으로八十五錢이오先限은九錢으로止하다始하야十錢과〇九錢을兩次重複하고先限은大阪五六節共히다七十三錢을傳하니硬軍의買氣回復되며始價十錢을最低로漸騰十八錢인

一節 三十圓九十九錢
二節 三十一圓九錢
三節 三十一圓十四錢

十四日後場
初付 三十一圓六錢

大阪期米
五節 三十一圓十六錢

中折帽 打鳥帽 學生帽

舊臘月十五日부터大晦日外지
舊歲暮大割引提供
◎掛曆及民曆無料添呈

特價品 一號 二圓四十五錢 二號 二圓四十錢 三號 二圓四十錢
普通品 一號 二圓五十錢부터 一〇五號 十八圓外지

特價品 一號 七十五錢 二號 一圓三十錢
普通品 一號 一圓〇五錢 五九號 九圓五十錢外지

本特 商製 會品
一號 五十錢 二號 九十錢 三號 一圓五錢 四號 一圓三十五錢 五號 一圓五十五錢 六號 一圓二十五錢 七號 二圓九十錢 八號 三圓三十錢 九號 三圓六十五錢

此外幼兒色帽等帽子種類로는萬稱이具備하오니續々愛顧를要求하

시압 ▲▲▲特典▲▲▲ 代金三圓以上購買하시는顧客에게는掛曆及民曆無料添呈하오며地方注文은代金引換으로[illegible]

帽子專門業 京城府南大門通一、二二 (尙南洞店舖) 廣興商會 電話三七一番

掛曆及民曆無料添呈하는特典

본방이개업이래제위에애고하심을다몽하온바금번일셔잡회물완비확장하옵고대렴가로쥬문하시는대로신실슈응하오니배견애고하시와욕속쥬문하옵소셔又본점에서제조하는美香粉은품질이양호하야귀부인에찬셩을만히밧는바이오니한번시험하야보시오

五房在家 京城府[illegible]丁目八十八 朴友植商店

ドクトル 女醫 中村齒科醫院
技工主任 文熙台
明治町二 (フランス敎會下) 電話一五八三番

ClibPDF - www.fastio.com

江東에臨時警察部
대한청년단사건으로인하야

평남경찰부(平南警察部)에서는 지난십이일 오후세시경에 경찰부당(警察部長) 이하여러경관이 평남강동군(平南江東郡)에 출장하야 평남경찰부 림시출장소를 셜하고 중대사건을 처리하기로 하는동시에 조선독립운동의 목뎍을가지고 각방면에 활동하며 군자금을이빅만원이나 모집하야 상해림시정부(上海臨時政府)에 보내고 일찍 강동군에서 빅여명의경관대와 격투하다가 톄포된 대한청년단모험부장(大韓靑年團冒險部長) 주석환(朱錫煥)과밋조원걸(趙元杰) 김병익(金炳益) 세명을 평양경찰서 류치장으로부터 자동차(自働車)에싯고 강동군으로 출발하얏다가 약이일후에 다시 평양에 도라오게 될터이라는데 이번강동군에서 이러난 사건으로 말하면 련루자가 여간만치아니한모양이며 따라서 사건이 점々 확대되야 단축한날자로서는 키리키어려운모양이라더라(평양)

光熙門城壁下茅屋裏에 怪常한老婆의屍體
팔십삼세의수상한로파시톄
타살인가자살인가방금조사

새작십삼일 오후에 시내황금뎡칠뎡목(市內黃金町七丁目)에잇는 훈련원파출소(訓鍊院派出所)에서광희문성벽(光熙門城壁)엽헤잇는 조고마한움집속에 엇던늙은로파시톄를 넛코 자물쇠로밧그로 든々히 잠근것을 발견하엿는데 그파출소에서는 이사실을 작십사일 오전열두시경에야 본뎡서에 보고 하엿슴으로동서에서는 련괴파출소의 태만을 췩망하는 동시에 갑작히대소동을입으켜장강(長岡)경부이하사법계원 전부가 벼락갓치출동하얏스며 그와동시에 그시톄의잇는곳이 동대문서와 본뎡서두관내의 경계임으로 어느관내의구역인지 아지못함으로 다시동대문서에 이사실을 통지하엿슴으로 동서에서도 재등(齋藤)사법계주임이하 륙칠인의 서원이 번개가치달녀왓스며 다시의편으로 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 대원검사(大原檢事)이하네명의 서긔가출장하야 매우번잡하엿는데 검사이하 련긔두경찰서 사법계주임의 렬동가치 잠긴것은 자물쇠를열고 그시톄를 조사하엿는데 그시톄는 머리와 팔다리가 모다검운이불속에 파뭇쳐잇스며 그시톄의 머리를둔벽에는 아상한피가 어리워잇섯는바 아직검시(檢屍)를 맛치지못하엿슴으로 그죽은 원인은아직자세히 알수가업는데 좌우간매우 수상한시톄라하겟스며 지금까지판명된사실로는

그시톄는

시내 원남동구십륙번디(市內苑南洞)에사는장래현(張泰鉉)의고모장청녀(張姓女)(八十三)라는바 련괴장청녀는 아들도업고 딸도업는 고적한사람임으로 작년팔월에 련괴장소에 장래현이가 조고마한오막사리를짓고 오날까지 거처하게하엿더라

鎖門이尤殊常
병으로는아니라고
장청녀의족하의말

시내광희문성벽(市內光熙門城壁)엽혜잇는오막사리속에서 로파의시톄가 발견되엿다함은 별보와갓거니와 그시톄의 족하되는장래현(張泰鉉)(三)은말하되 우리고모는 딸자식하나도업는 고적한 어룬임으로 나는작년팔월에현금이십오원으로보시는바와가치 이곳에오막사리를 짓코 한달에 쌀얼마식을보내여 살게하엿슴니다 나도 어제밤중에야 소관파출소의 통지를밧고 오날아참에야 와보앗슴니다 만약병이계시다면 나에게좌우간 조치를할터인데 그간아모소식도 업섯스며 또는누구가밧그로 열쇠를 잠것스니 참말알수업슴니다하고말하더라

◇로파의시톄가누은움집

耶蘇教教役者養成會成立
금년가을에는
류학성까지파견

남감리(南監理)와 북감리(北監理)두교회에서교역자양성소(教役者養成所)를설립하고 일본과구미각국에 유학성을 파견하야 신지식을 배우게한후 조선에도라와혹은 목사로 혹은교원으로

조선교회

를위하야 크게활동케한다함은 임의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이에대하야 그발긔자인 박희도(朴熙道) 오긔선(吳基善)량씨는 조선내 각중요한도회로 단이며 크게활동한결과다수한 찬성자를 모집하엿슴으로 재작십삼일에 시내종로중앙례배당에서 발긔총회를 열고 모든일을 의론한후규칙을 통과하고 임원을선거하엿다는데 그양성회々장은허헌(許憲)씨오총무는박희도(朴熙道) 씨며 회계(會計)는윤치호(尹致昊)씨라는대이제 그각 임원들은 권조선각디로단이며

크게활동

을하야 데일긔(第一期)에 대략삼천명 가량의 회원을 모집할터인바, 그회원중에는 보통회원으로는 일개년에 오원가량을내고특별회원으로는 일개년에 십원가량을내며 유지(維持)회원으로는 일개년에 십원이상을 내게한다하며 모든일이뜻대로되면 금년가을에는 대략삼십명가량의 유학성을 독일과미국으로 보낼터인바 사회를위하야 뜻잇고 성각잇는여러분는이에대하야 만히찬성 하여주기를바란다더라

釜山船夫慘殺한眞犯人을逮捕
대판금궁서에서

작년이월 십일오전세시경에 부산절령도(釜山絶影島)살마굴(薩摩堀)에서 사공의모자를 살해한사건은 당시에 부산인심을 놀내이든바 당시에 범인은형적을감추어 경찰당국에서는 극력으로 수식을하얏스나 오리동안데포치못하고잇든바 요사이 대판금궁(大阪今宮)경찰서에서 수일전에 모사건의혐의자로 한명의 조선사람을데포하야 엄중히사실한결과 그자가 련괴절영도 의사공모자를살해하고 대판까지도망하야 온사실을 자빅하엿슴에 그경찰서에서는 즉시그범인은 창원군(昌原郡)에서 출성한 김근수(金根守)(三)더라는자로서 그자의 자빅하는바와 그동시에 부산에서 참살을하든 사실과 대조를한즉 진정한범인이틀님이업슴으로 부산경찰서에서는 이살실의 면보를바든후 범인의사실을 금궁경찰서에 청구중인대 그당시에 범인은금전을강탈하려는 목뎍도아니오 살해현장의 참혹한정항도 그범인의 자빅하파갓다는바 수일후에 부산으로 압송할터이라더라(부산)

陰曆歲暮와平壤의賭博
각처에왕성하며

음력세초를지나고 다시 음력년말을당한 평양시내에는 골목々々에 노름판이풍성히 버러진모양인데 이노름판으로말하면 거리에로부랑자로아모직업이업서리배회하며 사람을속히어 배치우며 비단옷을몸에걸치고 가장풍채잇게도라다니다가연말년시를당하매주머니구석이말너서 엇지할수업서 친한친고나 무엇이니 도라볼것업시 뭐이고유인하야 단번에천량만량의 돈을벌기위하야 자연노름판이 느러가는모양이오 또한 엇던방면에는 세말청초를당하면 명절이 되엿느니 엇커니핑계를대이고 심々푸리로 한다는것이 결국몃천원몃빅원을 일카와 집한채가와다것다한다는데 평양경찰서을위시하야 각경찰계에서는 이와갓흔소식을 탐지하는동시에 시내에서다수한노름군을일시에검거하야 엄중한취체를하고자 매우분망하는 중이며따라서 다수한노름군을검거하얏다더라(평양)

◇白衣白壁의弊害
藝術上으로본片見의一端
卞榮魯

◇우리 나라사람들은 결핏하면『粉壁갓치 房을바르고』『白雪갓치옷을 빨라입고』라고말한다 참으로 흰빗은 우리民族의象徵色이랄만치 우리나라사람은 흰빗을崇尙하엿다, 甚하게말하면 흰빗만이惟一하게高尙한빗, 점잔은빗, 조출한빗으로 녀겨왓다 房은依例히白鷺紙로만바를줄아랏스며 衣服은 普通玉色아니면 白色이엿다。 더욱이李太王國喪以來로는白色熱이랄넌지白色狂이랄넌지벗적흰두루막이입는風이느러서二十안짝된 少年들도『물드린옷』을주면『치여러지게』『점잔치안케』하고잘아니입는模樣인것갓다。

◇못노니무엇이그리흰빗이조흔가? 營養不足으로오이꼿갓치노랑진이쒸지아니하면박꼿갓치횟속하게야 왼얼골에하얀두루막이자락만회회날니며당기면될일이무엇인가? 『朝鮮人은奇麗的으로衣服을희게하여입는다!』라고嘲弄인지稱讚인지모르는外人旅客의曖昧한讚辭를듯預算으로선가? 白衣主義로因하여나오는經濟上損失은姑捨勿論하고라도白衣主義로因하여몃十萬無辜한婦女子가재물에손가락을달니며『깃봄업는慘憺한生活』을하는가? 論이좀빗길로드러갓다。 이제本論으로드러가藝術的眼孔에빗추인白色主義의弊害를暫間써보겟다。

◇現在우리나라사람은어느文明國人에比하든지그理의長함과智의優함에는少毫도遜色이업다하나音樂이나色彩를듯고보는데는其程度가아즉低劣하고單純하지안타할수업다。 우리는音樂인것만치色盲임은더욱가릴수업는事實이다。 그럼으로複雜한色彩보다誘奢한單色을取하고、深色보다열븐빗을擇하며、絢爛한色彩보다地味가잇는重厚한色彩를조와하며甚至於色彩에서慰安과愉快를늣기지못하는者는結局無色인白色을尊崇하는것이다。 이것만보아도朝鮮人이얼마나色彩보는데低級임은勿論이나色彩보는데外지점잔은것에中毒된癥作이보인다。

◇最近에歐米에서多年間留學하고도라온어느友人이어느敎堂에서說敎하여달나는請託을밧고갈예深紅色넥타이를매이고가려다가『아이고남이異常하게보면엇더케하게!』하고地味잇는넥타이를밧고아매고가는것을보앗다。 나도붉은넥타이를매는데는贊成할수업스나옷맛은靑年이婚式이나婚禮式에가는사람갓치는점잔은넥타이만매며야한다는理由가무엇인가? 『빗고흔넥타이를매이고당기면그사람의人格外지疑心을할地境이다』라는말은보前逆한洋行한友人의歎聲이다

◇白色을崇尙함에는아조理由가업슴도아니겟다。 내生覺에는白色은元色이라日光과聖潔과仙官仙女(西洋에는天使)가업스니外)의羽衣의象徵色이다。 우리가이러한高貴한色을愛好함은우리民族性의高潔하고淡泊하고淸楚함을證明함은勿論이다。 그러나더욱反面에우리民族性의모든不美한點에對한反映도된다。 白色이諷示하는것과갓치우리民族性은너무도볼것업시맑고보는것에對하야無關心하고、渴求가업고、熱情이업스며、內容이업고、彈力이업스며、向上과進步이업나。 이런意味로보아서白色은우리人生에게愉悅과慰安과、不斷한暗示와夢幻과、沈滯한氣分을興奮식힘과、沮喪한元氣를鼓舞식히는빗이아니다。 그럼으로나는白色은決코發興의色이아니요頹廢의色이라斷言할지라

◇白衣의沒趣味되고非藝術的(語源가잇슨지모르나)입은嗅々보고어느누가이런奇怪한집에외踪치아니하겟다。 일것도업거니와居處하는房은白鷺紙로발르는것도不當한줄로나는生覺한다。房室의壁을白鷺紙로塗하면居處人에게陽明한氣分을준다하더라도그의(居處人)眼力을疲勞케하고또精神을放散식히며神經을刺戟하야心情의悠閑과精神의集中統一을保維할수업게된다。그와밧는다름이아니라白鷺紙만이모여安과悅樂과暗示를주지못하는乾燥無味한것이기때문이다。 이에이短文을맛치는富하야讀者의비는바는「이글을닑은이는곳옷을입고엇던房子석에서자랏나」하는말을멈추고금년부터는될수잇는대로白衣를避하고粉壁갓흔房을黃玉이나翡翠의宮으로만들소서함이다

東光學校問題로
작일하오에또불교림시총회

주지총회의 결의에대하야 각사회에서 모다실망을 금치못하는 승더욱직접관계되는 동광고등보통학교에서는 십사일 아츰에 교원과 싱도가모히어 비분한연설을하고 현재학싱 이빅여명은 모다 폐지하기전에 일제휴학을 한다는소식이드러오매불교총회에서는즉시부원유석규(劉碩規)씨를 파견하야 장리엇더케든지 유지할터이니 아즉은 휴학을하지말나고 설명하야 진정식히고 물교총회는 작일오후부터 다시 각황사(覺皇寺)안에림시총회를 열고림시의장박한영(朴漢永)씨의사회아래에회를열고동광학교문데의 선후책과 기타중요사항을협의하게되엇다더라

仕持會는十三日로閉會
주지가아니와서
흐지부지폐회해

삼십본산주지총회는 십삼일 오후에도 계속개회코자 하얏스나 주지중 반수이상이 참례하지아니하야 결국 회는열지못하고련일방렴하든 총독부 종교파당도 간섭치안켓다는말을하고도라가매 파란만흔주지총회도 결국중도에 폐회하고 본년도예산도편성하지못한대로각본산으로도라가게되엿다더라

十本山決議로 東光校를 유지하게되고
총무원까지승인

주지총회는 권에업든 파란속에 막을닷치는 한편에 유신사업을 찬정하는 주지십여명은 십삼일 오후두시부터 영성문안 중앙포교소(中央布教所)에비공식으로 회를열고 해가지도록 선후칙을 강구한후결국해인사(海印寺)외 십본산은 불교총회에서 결의한바와가치 그사찰의 재산삼분의일을 총무원(總務院)에 밧치어 사업을 하야나가기로서약서(誓約書)를만들어 서명날인까지하얏는데 십본산의승락한 총익이 일년수입 사만원은 되겟슴으로 포교와 교육사업에쓰게 될터이라든 폐지의소식을 전하든동광고등보통학교도 그대로하야나가게되고 신명학교도 유지하기로 되얏스며 모당국으로부터 아못조록 사업을찰하야 나가면 당국에서는 간섭하지 안켓다는 발이 잇섯슴으로 실망하얏든유신호원사이에는 다시취우이 인섭하는 깃붐이싱기게 되엿스며 총무원사업을 찬성한본산은 아래와갓더라

通度寺、梵魚寺、海印寺、釋王寺、白羊寺、威鳳寺、奉先寺、松廣寺、祇林寺、乾鳳寺

飲酒끗헤格鬪
나종에는편쌈까지

십일々오후 일시경에 겸이포욱뎡(兼二浦旭町) 사는 삼릉직공(三菱職工)김봉노(金鳳魯)(二四)라는자와대정뎡(大正町)에잇는 원도경(元道敬)(三五)이라는두사람은 겸이포대정뎡 음식뎜에서 술을먹든중 돌연히싸홈이 되여 나종에는 격투가시작되매 이소식을듯은 그들의동모들은 벌떼가치 모혀와서 양쪽이편을지어가지고그집을나와길거리에서큰싸홈이되엿스나 곳헤여 젓다더라 (겸이포)

白軍中에朝鮮將校
빅위군의중심세력은조선인
목격하고도라온대위의말

서빅리아(西伯利亞)에파견되얏다가 집이일에 부하로더부러갓치도라온데 십일사단(第十一師團)의수송지휘관태뎐대위(太田大尉)의말을들은즉적위군(赤衛軍)과빅위군(白衛軍)의 싸홈은 아직도계속되는데거번에이만을덤령하엿든 빅위군중에는 수빅명의 조선독립단이 섯기어잇고 그들은사실상 빅위군의중심세력을잡고잇스며 그중에는 조선인의장교까지 잇는데 그들은 순전히 일본식군률을 사용하야 모든것이 정돈되얏고 그지휘관중에는 일본사관학교 출신도잇는듯하다더라(복강)

釜山大火
십오호소실
손해는십오만원

재작십삼일 오후칠시반경에 부산남빈뎡(釜山南濱町)이뎡목료리점을 경영하는 중가(重家)라는집부근에서 불이나서 그부근에잇는 가옥십오호가 전소하고 삼호가 반소하고 동열시경에야 겨우진화하얏는대 불이난 원인은 방금 조사중임으로 자세히는 보도키어려우나 그날밤에는 전긔요리집 중가에서 부산려관(釜山旅館)조합의 신년연회가 잇서 요리를준비하는중 부칭개질을하는중 더운기름에 불리가드러가서 드디여 큰화재를내인듯하다는 풍설도잇스나 손해익은 약십오만원가량에 달하며

六十戶全燒
동경에도화재

십사일아침에 동경부하 하삽곡장곡호(東京府下下澁谷長谷戶)에는 큰화재가나서 륙십여호가 전소하얏다더라 (동경뎐)

蓮池洞에小火
초가한간을태워

재작십사일 오후두시 십삼분경에시내련디동(蓮池洞)이빅이십이번디유식점최뎡호(崔貞鎬)의집에서불이나서 초가한간을 태우고곳 진화하얏는데 원인은온돌굴뚝에서 불길이나오듯 하다더라

輕便車도不通
개천디방에큰눈

지난팔일오후십시부터 개천(价川)디방에는바람이솔々불며 눈이오기시작하야 잠시를 긋치지아니하고 구일오후 팔시경까지 왓는데 통잇이곤난하야 군우리(軍隅里)신안주(新安州)간 경편차도운전치못하엿더라(개천)

職工六千罷業
신호정량회사의

신호(神戶)에잇는 정량을 제조하는 각회사의직공 륙천명은품삭을 징가하야달나는 청구에대하야자본주 편으로부터 거절을당하고 십삼일아츰부터 일제히동맹파업을 하얏는대 그형세가매우위험하다더라 (신호)

若草町에兒屍
어러서죽은듯

재작십삼일오후에시내약초뎡오십삼번디(市內若草町)에사는리모(李某)의 집압헤 나흔시더락구개월가량되는 사나희아해를 내여바린자가잇서々 그아해는 치위에 그만얼어죽엇는데 이보고를접한 본뎡서에서는 방금그범인을엄탐중이라더라

印刷工定期總會
오날광무대에서

경성각처에잇는 신문사와 인쇄소에근무하는 인쇄직공으로 조직된인쇄직공친목회(印刷職工親睦會)에서는금십오일 오전십시에시내 황금뎡광무대에서 뎨이회뎡긔총회를 연다는데 그회원은 물론이오 인쇄직공은누구든지 참석하기를 바란다더라

黃己枕氏滿期出獄
십이일에만긔출옥

대정팔년 삼월에 조선독립만세를부르고 다시여러민중을 선동하야 소요를이르키엿다는 사실로 황해도 황주군(黃海道黃州郡)에서데포되야 평양디방법원에서 오년징역의 판결언도를밧고 평양감옥에서복역하다가 륙사를밧아 이년반의 감형을밧고 이리 진남포감옥(鎭南浦監獄)에서복역중이든 텬도교교훈(天道教教訓)황긔타(黃己枕)씨는 지난십이일에 만긔되야 그날오전두시에출옥하며 바로 평양에 도라왓다더라(평양)

謝告

本社調查部長金東成君이本社를代表하야布哇의世界記者大會에出席하고更히本社特派員으로華盛頓會議를參觀하고一昨無事歸着하온바其通過各地特히東京、布哇、米洲에在留하시는同胞兄弟姊妹로부터多大한便宜와熱烈한歡迎을寄與하심은本社가諸君와共히深切히感謝하는바이라茲에紙上으로써天下에公表하야謝意를表하나이다

又本社調查部長金東成君의記者大會出席과華盛頓會議에對하야朝鮮內의江湖有志와諸君諸位로부터深厚한好意를寄與하시는同時에又는去十三日釜山으로上陸으로부터京城到着까지沿路各驛에서多數人士가寒天遠路에懇篤한迎送을하심은本社의深切히感謝하는바이며且時間의關係로歡迎會에招請하심을謝絶한處가有함은遺憾不勝하는바이라茲에謹히紙上으로써謝意를表하나이다

東亞日報社

모임

▲종로청년회일요강화회 금십오일하오삼시에홍병선(洪秉璇)씨가(復活의基督教)란문데로강화

▲불교대회강연회 금십오일하오두시에 경성불교 중앙포교소에서다음과가지강연

佛教와世界의魂 白初月
人生의眞樂 金映遂
敎祖의人格上으로본佛 後藤瑞岩

◆온도비교◆(攝氏)

今年昨日(正午)零下	二·二
昨年昨日(正午)同	八·一
昨年最低 零下	二二·三

天氣豫報

日出 上午七時四九分
日入 下午五時三〇分
自十四日午後六時至十五日午後六時 雲一 晴
京城十三日最低零下十三 京城十四日正午零下二二

◉휴지통

▲음력년말이 갓가워옴으로 평양시내에는 곳々에노름판이 버러지이다하며 경관은 이를 검거하랴한다는데▲근일강동사건으로 강동에 림시로 경찰부가출장소를 두엇나한슴 어느겨를에 그까짓노름판에상관할여가가잇슬나고▲이것은 하필평양한곳에서만 보는현상은아니다 도처에 근리노름관이왕성한것은사실인듯한대경찰서에서는 알고도름이업서々그도하지 검거함을 볼수는업다▲자려한지 과히몰나서 그러한지별연큰일이 성기면 자근일은도라볼며가가 업는것이지만은 시내에서도 차々노름판이 퍼진다는 풍설이 자조들니족 만히퍼지기전에미리 단속함이엇더할지▲돈은 일케되고 기름불이업스면 코피까지 려차어 불 켜고하는 승벽을가진 노름군의일이라 그럭케쉬웁게 금하기도어려운 일이라 하겟지만은 ▲데일두려운 것은 『사괴도박』이라나하는 특송의노름이다 부랑장기 짓치면 노름군되고 노름군이쇠이면 도적질을 하게되는 것은사실이라 ▲그러케싱각하면 노름이다 하는것이 과연얼마나 두려운일々가

學生帽子 永信製帽店
朝鮮帽子製造 最廉價로販賣
平壤府新陽里一六七 金昇鎬

特製 梅毒丸
淋疾靈効丸

天恩堂大藥房 本舖 京城鍾路二丁目 劉在元
定價二日分五拾錢 本劑는男女淋疾에靈藥으로膀胱炎、淋疾、尿道炎、慢性淋疾에特히神効하야服用日로부터効力이偉大하야三、四日內로完全根治됨 (但地方에는代金引換應酬함)
振替二二七九番 電話一一五四番

금은달외 지음뎐 세찬으로 定價에서 五分減하야 드림니다 더욱五圓이상사시는분에게는 달력하나식드림니다
京城鍾路二丁目 동아부인상회
설을도라오면 여러가지쓰실것만삽니다 무엇이던지물건좋코갑싸게사실수잇삽니다

朝鮮名筆秋史書帖 全一冊 定價五拾錢 送料十錢 (五冊以下는要先金)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 德興書林

學生便利 新義州眞砂町四丁目 三榮商店 主任 尹德鉉

特別提供 歲暮割引 舊 一週年紀念一割引 洋靴는반드시春秀洋靴店!
春秀洋靴店 《注文時掛曆無代進呈》
京城府唐珠洞四十番地 電話長二二八四番 主 禹春秀

友助堂時計舖 京城南大門通五丁目 電話五〇二〇番 振替一八九五番

●無火處에煙不出 祛痰止咳散
慈善堂藥房 金錫胤

新年과修養 修養과良書
京城府堅志洞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프랭크린 / 成吉思汗 / 월손 / 타쿠르 / 理想村 / 朝鮮大地圖 / 同軸製

宋繼白君이宿患으로本月十二日午前十時에永眠하얏삽기茲以訃告
友人總代

무쇠탈 (十五)

閔牛步

전왕비오부인、왕비한씨、시녀연연이、배종리창수(十)

라한욱은 리창수의 주저하는 모양을 보고 또 링소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부인을 생각하고 잇다니 자네도 어지간히 속업는 사람일세 자네는 부인이 도적구방엇던 려관에 숨어잇다는 말을 듯지 못하엿는가 그려관에는 부인의 정든님이 숨어잇서 그사람이 몸을 상한까닭으로 부인은 자네를 바리고 그곳으로 가서 병구원을 하고 잇네 그러한줄은 아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생각을 하다니 자네는 참 눈치도 업네」 박청한리창수도 이 말을 듯고서는 심사가 편안치 못하야 얼골에 불평한 빗을 나타내며「넘이라니 누구 말슴이오」「지금 말하는 음모당의 신봉이지 자네보다 갑세의 미남자로서 남작 안퇴승이라는 사람일세」「안퇴승의 얼골은 아지 못하나 그와 부인 사이에 서신왕복이 빈번한 일과 더욱 부인이 그 편지를 비밀히 간수하는 것은 이왕부터 짐작을 하던 바이라 이제는 그 말을의실하지 안코「오냐 보자」하는 결심을 얼골에 나타내매 라한욱은 그 눈치를 알어보고 안퇴승이가 자네 은인을 가로차스니 자네는 안퇴승의 안해를 가로차는 것이 당연한 보수가 안인가」이 말은 분명히 효험이 낫다 라한욱은 이 효험난 게책을 다시「그 뿐인가 그 안해를 가로차는 공으로 금군정위가 되고 그우에 삼십만량의 상금까지 탈것이요 만일 실타고 하면 지금 네 입으로 국가의 비밀을 말하여 노앗슨즉 자네는 붕화에게 위험인물이라는 혐의를 밧아 원평생을 옥중에서 지나게 될것밧게 업스니 아무러턴지 자네 맘대로 골너잡게」하고 뒤를 쏵 조키노으니 케가 무슨 용긔로 실타고 말을 하랴「알엇슴니다 이처임은 분명히 철어내지요」하고 비상한 결심을 보혓다

◆ ◆ ◆ ◆

이와 가치 하야 라한욱이 리창수를 을어는 뒤로부터 지금은 벌서 월여가 되엿다 그동안 그네들은 무엇을 하엿든지 또 소식은 알길이 업슨즉 이케는 중상을 당한 안퇴승의 일부터 긔록하리라

안퇴승은 사오일 동안은 날마다 보라오는 의사의 눈에도 심사를 분간할수 업스나 다만 청성을 다하는 방월희의 구원이 철천의 력탁보다 나엇던지 일주일 뒤로부터 차々 회성될 가망이 싱기더니 그뒤로부터는 의사도 놀날만큼 급속히 나어가서 삼주일 되던 때에는 엇던 상등려관으로 옴기엿스며 의사의 허락을 엇어 평일에 정답게 지나는 사람들도 면회를 하게 되엿더라 병중에 차저온 사람들은 모다 비밀한 친구이며 저오부인도 그중의 한사람이엇스나 부인은 이때에 오리잇는것을 긴치 안케 싱각하야 여염부인의 복식을 갈어입고 월희의 하인 초풍을 배행삼아 불란서로 돌어갓더라 방월희는 자긔 목숨과 밧구기를 결심하고 주야가업시 병구원에 애를 쓸케 안퇴승은 날로 회복됨을 딸아 이뒤는 빗이 여러가지로 념려는 되나 그는 안퇴승을 사랑할뿐이요 별로 오부인과 가치 정지상의 의견을 품은 녀자는 안인즉 안퇴승의 부상한것은 슬프게 싱각하나 그까닭으로 하여서 져무서운 음모가 명지된 것은 돌이여 다힝이라 싱각하고 하로라도 속히 상처를 치료한뒤에 손길을 마조잡고 고향에 돌어갈 날을 즐거워하는 모양임으로 안퇴승은 가금 눈살을 씨푸리는 일이 잇스나 아무것도 몰으는 녀자의 몸으로 이와 가치 나를 사모하야 삼사년 동안을 남북으로 지내옴도 어렵게 녁이지 아니하며 긔지로부터 긔디에서 한명 업는 고싱을 능히 견딜 뿐 아니라 그러한 숨에도 한숨 한번을 쉬여보지 안는 그의 심사를 싱각하고는 남모르게 참자를 흘린 일도 만엇다 다만 다힝히 이커음 각국을 돌어오는 길이라고 엇던 유력한 동지의 소개장을 가지고 와서 새로 상종을 하게 된 오필하 정위라는 사람은 미묘한 못는 얼골에도 만부부당의 용긔를 가지고 가치 군사 쓰는 법을 의론하매 언변이 령롱하야 흉노위태한 땅에 세울지라도 족히 한모를 당할듯한 지략 안퇴승은 여러가지로 오필하의 지긔를 흘러보나 조금도 의심할뎀이 업서 만일의 실수로 자긔몸이 불힝한뒤라도 이사람이 잇고 보면 족히 부하의 결사대를 거나릴 만하다고 싱각한 고로 중대한 비밀까지도 숨기지 아니하게 되엿스며 월희 역시도 남편의 신임하는 친구라하야 이사람을 관곡히 대칩한다 더욱히 이사람이 올때마다 남편의 얼골이 매우 유쾌하게 보이는고로 이사람이야 말로 하늘님이 우리 남편의 상처를 속히 회복식히고자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싱각하나 다름업시 깁버하고 작별할때에는 다음 다시 올긔약을 물어보도록 친밀히 이가 되엿다 더욱이 오필하 대위는 각국을 돌어온 까닭으로 엇던 나라 사정을 말하던지 매우 자세히 알며 요컨에는 불란서에 잇섯다하야 파리의 사정은 가장 자세히 아는지라 루이왕과 르봉화의 방자한 거동을 말하면 안퇴승으로 하야금 부지불각에 이를 갈고 분히녁이게 하도록 진정을 그리웟다 또 리약이를 듯나서 연국과 기타에 옴기매 방월희 역시도 자긔 몸의 고싱됨을 이저바리고 몃달 동안에 우서 본 일이 업는 그의 얼골도 펴게 된다 과연 이사람은 누구에게 대하던지 슬어부치는 일종의 이상한 힘이 잇는 사람이엇다

各地青年團體

金海巡回劇團續報

金海靑年會巡回演劇團一行은 去三日昌原邑에 到着하야 同地靑年會와 本報昌原分局後援下에 三四兩日間演劇을 興行하야 每夜四五百名의 觀覽者로 大歡迎을 受하얏스며 同情金이 左記와 如하얏다 ▲金三圓 金女史 ▲金五圓 金女史 金女史、金暻均、金沂錫、薛永喜、甘在淮 ▲金十圓 金一鉉 薛德明 ▲金五十圓 金徹鉉 以外諸氏이며 更히 同團은 五日密陽邑에 到着하야 同地靑年會와 本報密陽分局後援下에 社會劇「男妹의 八年苦」란 題로 우리 社會의 가장 適切한 場面이 多하얏는데 同地有志로부터 如左한 寄贈이 有하얏더라 金二十圓 韓春玉 ▲金十圓 尹致琇 金五圓 朴仁洙、尹致堅、張錫鳳、朴壬守、東亞日報密陽分局、密陽靑年會、密陽女子靑年會、李永準、崔武元 諸氏이며 同團은 密陽女子靑年會의 招聘에 應하야 同會에서 經營하는 女子夜學校를 爲하야 一日間慈善興行을 하얏다더라(密陽)

苦學生親睦會講團

去三日半島苦學生親睦會巡回講演團一行이 木浦에 到着하야 同夜陽洞永興學校에서 開講하고 當地靑年會智育部長朴德珍君의 司會下에 呂弘君의 『今日의 生存競爭』 姜鳳漢君의 『將來를 準備할 今日』 張世淡君의 『團合의 能力』 이란 題目의 熱辯이 有하야 滿場聽衆을 博하고 이에 當地 徐光朝君의 勸誘가 有한 同時에 先發捐이 合計九十二圓七十五錢에 達하얏스니 其氏名은 左記와 如하며 同一行은 四日正午에 靈光郡으로 發向하얏다더라

文在喆、基督女子修養會幹部 各十圓 金鍾熲 十圓五十錢 車南鎭 金命峻 金德仁 李炳英 各五圓 金東元 朴德珍 各二圓 其他無名氏(木浦)

基督靑年巡回傳道

京城基督靑年聯合會巡回傳道團一行四人은 一月二日午後三時東信川에 到着하야 木邑基督敎靑年會의 後援으로 同日午後七時半부터 耶蘇敎禮拜堂內에 講演會를 開催하고 會長方台信氏의 司會下에 祈禱로 始하야 洋樂隊의 奏樂과 宋春根氏의 獨唱 又는 女學生의 合唱이 有한 後 演士 尹槿氏는 基督靑年聯合會趣旨라는 題로 李大偉氏는 靑年會의 價値라는 題로 吳熙千氏는 時代에 順應이라는 題로 各其熟辯을 吐하야 五百餘聽衆에게 만흔 感想을 與하고 同十一時에 散會하얏다더라(信川)

謹賀新年

益山郡八峯面事務所 職員一同

益山郡春浦面倉坪 朴象鉉

益山郡春浦面倉坪 任漢澈

益山郡春浦面倉坪 李侻

益山郡春浦面倉坪 蘇碩永

益山郡春浦面倉坪 南龍熙

益山郡咸鏡面石梅里 鄭憲永

益山郡黃登面龍山里 柳基豊

益山郡王宮面鉢山里 李鍾喜

安東縣二番通四丁目三番地 信東商會 朴洸

安東縣三番通 永月館 吳永洙

莊河縣大孤山 養心旅館 主 李相瑨

安東縣二番通六丁目 料理業 滿城館 白桂香

安東縣掘割南通七丁目 精米業 正信商會 電話長五七一番

安東朝鮮人會

安東縣興隆街 藥種貿易 委託業 濟和藥局 張國善

安東縣六番通五丁目三番地 (T)仲買店 姜漢朝

安東縣三番通七丁目三番地 山東紬朝鮮紙 穀物木材雜貨 委託業 東昌號 金炳浩

光州錦町 高丙鎔

光州 崔今順

光州 朴鳳儀

光州 崔永安

大田驛 吳秉宅

大田專賣局出張所 金哲熙

靑陽郡雲谷面事務所 明堯鎭

靑陽郡靑陽面邑內里 張起燮自働車部

平康邑內 鍋釜商 金用淳

江原道平康邑西邊里 全平康運輸組 崔善行

平康公立普通學校 訓導 李龍卨

平康邑內 貿易商 孫銖洙

平康邑 江北自働車部 三光運送部 店主 金昌 專務 李殷弼

平康邑東邊里 朝鮮料理 大興館

京元線平康驛前 南滿洲鐵道京城管理局承認貨物取扱 內地朝鮮通運株式會社取引店 京鮮運送合資加盟店 貨物積卸運送請負人 因大鹽組 店主 主任 金陽樂

京元線福溪驛前 雜貨商 李士元

京元線平康驛前 雜貨商 小柳仁三郞

京元線平康驛前 鐵道承認 貨物取扱、委託販賣 (キ)金運送本店 店主 金洛貴 總務 金秉坤 專務 金相俊

京元線平康驛前 鐵物商 朴点陽

京元線三防驛前 貨物取扱 日用雜貨 (キ)運送店 店主 朱鳳基

順天郡廳 金永近

順天郡順天面金谷里 金昌洙

順天大盛商會自働車部 主人 金學洵 主任 金學樞

順天郡注巖面事務所 職員一同

順天郡注巖勤儉貯蓄會

順天郡注巖金融組合 職員一同

順天郡黃田面大峙里 朴勝奉

喪中年賀를除禮함 天安郡邑內里 大成醫院 院長 李敬埴

天安郡邑內里 諸印刷物 和洋紙類 其他用品 天安印刷所 安秉奭 電話六四番

天安郡邑內里 諸印刷物 和洋紙類 其他用品 京南印刷所 全榮夏

天安郡木川面校村里 朱洛龍

天安郡北面恒谷里 吳在協

天安郡木川面西里 李殿鍾

順天公立普通學校 職員有志

順天郡邑內南北商店 禹沂植

順天郡廳 吳義喆

順天憲兵分遣所員一同

順天郡廣川公立普通學校 具周南

順天郡雙岩面事務所 職員一同

順天郡黃田面長 姜仁會

天安郡天安面本町 理髮部 徐商惠

牙山郡排芳面細橋里 沈仁澤

天安郡豐歲面事務所 玄百司 玄光稷 玄光文 李燦世 朴錫圭 李鎔惠

天安郡木川面事務所 面長 李基鍾 會計員 金與昌 書記 鄭寅傑 同 趙漢宅 同 金珪燦 同 金東瑗 技手 李佛相

天安郡南山町 海産物販賣 委託販賣 康俊鶴 振替口座京城一三八一

京釜線天安驛前 (上)運送店 電話二五番

利川郡邑內 布木雜貨 李仁浩

利川郡邑內 尹進貞

利川郡麻長面 午川穀物商會

楊平郡 光東自働車株式會社

丸二運送店 酒井運送店代理店 丸江運送店 楊平邑內

水陸運送 穀物賣買 食鹽石炭 委託販賣 (Y)濱陽運送店 主任 朴貴汝 柤鉉俊

利川公立普通學校 石鎭均 安璇煐 李秉憲 許潤 李得雨

忠淸北道忠州郡大平町二丁目 輪榮商會 主 尹炳球 電話(イ)二八番 電略(イ)又는

東萊郡西門通 日新堂洋靴店 主任 金萬伊

東萊郡東萊面院里 金命守

東萊郡東萊面福泉洞一三三 株式會社 東萊銀行

東萊郡 南面事務所職員一同

扶餘郡世道面靑浦里 金允永 高相俊

江景中町 洋靴及自轉車 興行商會 主 尹東萬

群山榮町仁信洋靴店도本商會의支店이온바新年부터는倍前愛顧하심을務望하나이다

扶餘郡忠化面支石里 鴻山靑年會長 孫昌煜 同胞風情 與歲俱新

京釜線龜浦驛前 穀物商 李渶雨 金東貝

京釜線龜浦驛前 穀物商 許欖

東萊郡南面西里 金化壽

晋州邑內 崔斗煥

東萊溫泉 男女浴湯具備 各種料理調應 山海旅館 電話二八番

東萊郡東萊面福泉洞 許定九

東萊郡東萊面溫泉里 朴敬琪

東萊慈善夜學校長 李敬玉

江景中町 院長 鄭容軾 上水醫院

平壤西門通 天賜堂時計店 主任 朴寧煥

平壤門通三丁目 金物木材商 白潤植 電話七一二番

平壤府倉田里二九番地 製材、原木、丸太、角材 石炭、薪炭 協成材木商會 電話五六八番

平壤南門通三丁目 英米屋洋服店 金鳳洲 沈鳳津

平壤府南門町 가후에ㅣ미가도 電話一七三番

京城驛前 鐵道局承認 貨物取扱 (回)國內運社 主任 李光仁 電話三三二番

平壤南門通 綿布 金志洙商店 長距離電話二七八番 振替京城五二二一番

平壤府倉田里四九 牛皮毛皮 貿易商 世昌商會 主 金長 電話二七九番 振替京城一〇三四八番

平壤府柳町九四番地 朝鮮燒酎株式會社 電話八四六番 長電話七七九番

陜川郡廳 李章喜 龜山章一 下田安雄

陜川伽倻山海印寺

陜川靑年會

陜川郵便所

陜川伽倻山海印寺 紅霞旅館 李東秀

信川郡溫泉驛 (東)共益運送部 主任 車乘黎

黃海道信川郡信川面武井里 商理社 黃海道 海西支社 都班首 姜伯善 外職員一同

海州南本町 雜貨商 全龜鉉

全南光州郡光州面 南鮮印刷株式會社 出張所 木浦府福山町三

昌原郡鎭北面與木里 李晶宰

昌原郡熊川面 姜德永

京義線沙里院 殖産組合

喪中年始欠禮 定州 安炳憲 方應謨 盧鏞行

松禾郡豐川 盧正鉉

松禾郡豐川 李根奭

松禾郡豐川面 金光

松禾郡下里面事務所 職員一同

南川殖産契總會

京義線南川驛前金鏈春栗興業朴元根氏等의發起로客年一 … 發展上好評을得하든터이오去十二月卅一日一週年紀念總會를金鏈春家에開하고大々的으로進行 … 固城郡固城面德仙里에在한鐵城義塾은本是舊朝鮮造草家로서敎室이狹小하고位置가不適當으로 … 工事는方今着手中인바落成은今年三月內로될터이오學校로말하면私立으로는固城에서第一位를 …

敎會內區別制撤廢

咸鏡線新上敎會는昨秋信川金益 …

鄭氏父子의熱誠

慶南河東郡玉東面正水里鄭沂永氏三父子 … 此히하야同父子는거의寢食을忘할뿐아니라且殖産興業契를組織하고每年各人前에租一斗金二十錢 … 者이殆無하고同組合의財産이五千餘圓에達하얏는데錦上添花로大正九年八月頃에落成共濟會 … 고此를去年부터實施한바鄕村間의模範이될만하다더라(晋州)

孫炳瀅氏의敎育熱

… 而敎員은男子一人女子一人을延聘할터이라하고學校設用까지自擔하리라더라(大邱) … 皆延聘하겟다함으로地方一般人士는氏의熱誠을感歎한다하며 …